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선근

'97 교회학교 교사단기수련회 개최

6월 17일(화), 피교육자 연관 부서별로
전체를 4그룹으로 나누어 그룹의 특성에 맞게 진행

교회학교 교사를 위한 교사단기수련회가 오는 6월 17일(화)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50분까지 실시된다. 매년 한 차례씩 실시하여 교사들의 영성을 돕고 교사의 사명을 새롭게 하는 목적으로 교사단기수련회가 개최되어 왔다. 또한 교회내의 교회학교 전 교사가 모이는 기회가 1년에 한번도 없었기에 교회학교 교사단이 모였을 때 오는 새로운 분위기와 교제도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금년에 실시하는 교사단기수련회는 예년과는 다른 조금 특이한 면을 가지고 있다.

금년에 실시하는 교사단기수련회는 각 성장 단계별로 교육 방법을 제시하고 또한 97년도 각 교회학교의 여름계절학교를 앞두고 교사들에게 영적 유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이번 단기수련회가 예년과 다른 점은 갈릴리홀에서 개최예배를 다 함께 드린 후 교회학교 피교육자를 연령별 및 특



▲ 지난해 교사단기수련회의 모습. 전 교사가 분당에 모여 특강을 듣고 있다.

수그룹으로 분류하여 각부서에 적합한 내용으로 실시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강의와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좀더 세분화된 분류가 필요하지만 우선 이 정도의 그룹이라도 나누어 실시하게 됨으로 교사들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가 있게 되었다.

이번 교사단기수련회의 시간 및 진행 계획은 아래와 같다.

오후 7시 30분~8시 개최예배

오후 8시~8시 10분 강의실 배치 및 이동

오후 8시 10분~9시 40분 강의

오후 9시 40분~9시 50분 광고 및 폐회

인사이동

•교역자 인사

1. 사면

- (1) 김찬곤 목사
- (2) 장봉생 목사

2. 임, 면

- (1) 교구위원회 지도면 김찬곤 목사
명 김희수 목사
- (2) 중등1부 지도면 김희수 목사
명 전형준 목사
- (3) 대학부 지도면 장봉생 목사
명 한근수 목사

•직원 인사

1. 임, 면

- (1) 기획실장면 오진국 장로
- (2) 사무국장면 이종국 장로
명 오진국 장로
- (3) 비서실장 겸 교육국장
명 이종국 장로

	A	B	C	D
개회예배 19:30~20:00	갈릴리홀			
강의장소 20:10~ 21:50	교육관 307호	교육관 314호	교육관 407호	베다니홀
강사	노영주 전도사 총회교육국 공과제작 담당	김희수 목사 충현교회 교육훈련원, 중등1부 지도	송인규 목사 합동신학대학원 교수	김일권 목사 안양특수아동조기교육 연구소장, 특수선교신학 이사장
수강대상	탁아부, 양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교사 전원	초등부, 소년부, 중등 1·2·3부, 고등부 교사 전원	대학부 청년1·2부, 새가정부, 장년1·2·3부, 소망부, 예산부 교사 전원	사랑부, 에바다부 교사 전원

.....
제작사진첩을 만듭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설립 마흔 다섯돌이 되는 1998년에 새로운 제작사진첩을 펴내려고 합니다. 제작에서는 '주보'와 '주간충현'의 교회소식란을 잘 보시고 단정한 차림으로 제 날짜에 찍으셔서 보다 알찬 사진첩을 만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2일에 제1교구부터 시작하여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한 주일에 한 교구씩 차례대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 찍는 곳 / 홍보실(선교관 408호)
- 찍는 때 / 1997. 6. 22-12. 31
주일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30분
수요일 낮 12시 30분~오후 7시
금요일 오후 6시~7시 30분
- 찍을 사람 / 원로, 은퇴, 시무장로 / 교역자 /
은퇴집사, 안수집사 /
원로, 은퇴, 시무관사 / 담녀 서리집사

충현기도원에서

6·25 구국 부흥사경회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충현기도원에서는 6·25 47주년을 맞으며 구국 부흥사경회를 오는 6월 23일(월) 저녁부터 27일(금) 새벽까지 실시한다.

북한의 사정과 국내의 복잡한 정치 상황 등으로 한결 조심스러워진 이때에 47년 전 6·25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특별히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 부흥사경회를 개최한다.

강사는 총신대학원 강사인 김진택 목사이고 주제는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다. 부흥사경회는 새벽기도회, 낮 공부, 저녁부흥회로 진행된다.

제직회로 모입니다

6월 22일(주일)

4부예배 후 분당에서

금주 주부교양강좌

6월 19일 오전 10시 20분~12시

즐거움을 통한 건강비결

강사 / 황수관 박사

- 강남중앙감리교회 권사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KBS FM라디오 월, 목 출연

● 김창인 목사의 이사야서 강해 ●

하나님의 초청

(이사야 1:18-20)

초 청하는 사람이 훌륭한 분이면 기분이 좋습니다. 또 대접도 융숭하고 문제도 해결이 잘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1. 우리를 청하여 주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1)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무한이란 말은 비교할 자가 없이 높은 분이란 뜻입니다.

(2) 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들이 '이 집은 내 집이야, 이 땅은 내 땅이야' 하면서 뽐내지만 사실 사람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여관같은 세상에 와서, 나그네로 있는 동안 잠깐 위임을 받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에는 그대로 세상에 놓고 알몸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영원한 주인이시고 인간은 잠시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관리하는 것뿐입니다.

(3) 사랑과 자비가 지극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였고, 하나님의 자비는 살인 강도도 용서하여 천국으로 영접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형용할 수 없이 풍성한 분이십니다.

(4) 공의로온 재판장이십니다
열 번 참으시고 백 번 참으시다가도 끝까지 회개를 아나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심판의 뭉둥이를 드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뭉둥이를 들기 전에 회개하여 사람 노릇을 해야지, 하나님이 심판의 뭉둥이를 들어 차시면 잘나고 강한 자가 없습니다. 갈빗대가 부러지고, 머리가 터질 것입니다.

2. 청함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1) 구더기같이 더럽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이만하면 됐지, 뭐' 할는지 모르지만 그러지 마세요. 구더기끼리 비교해 보면 조금 큰 놈, 조금 작은 놈이 있으나 사람이 구더기를 보면 침을 뱉는 것처럼 인간끼리는 제가 잘났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 다 구더기같이 더럽고 하루살이같이 약합니다.

(2) 변하기를 잘 합니다
인생은 갈대와 같이 정함이 없고 지조가 없습니다. 뭉둥이 불면 갈대가 서편으로 머리를 숙이는 것처럼 인간들은 세력 잡은 사람 앞에서는 선하거나 악하거나 간에 굽실거리며 지조가 없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굽실거리

니다. 인정과 욕심에 끌리고 세력에 끌려서 바람이 부는 대로, 굽실거리는 갈대처럼 되는 대로 사는 인간에게는 절개를 지키는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3) 개인주의자들입니다
'남이야 죽겠으면 죽어라 나와 내 식구만 잘 살면 된다' 하는 개인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면 백성의 재산은 한 톨도 남지 않고 다 없어지건만 나라를 망치면서까지 개인의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들입니까. 개인주의는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지 않고, 상대방과의 이해 관계도 생각하지 않고, 제 욕심만 채우려는 더러운 인간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하여 나보다 나은 사람은 시기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은 착취하여 등가죽을 벗겨 먹습니다.

(4) 바보 인생입니다
악인 줄을 모르고 범하는 바보로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교회에 골치덩어리 노릇을 하면서도 제가 잘났다고 교만합니다. 못된 짓을 하여 망할 함정을 파면서도 제가 잘났다고 뽐냅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은 망할 줄도 모르면서 가장 잘난 것처럼 뽐내는 바보들입니다.

(5) 악한 인생입니다
악인 줄 알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악한 인생들입니다. 도적질을 하면 망할 줄 알고도 계속하는 인간들입니다.

(6) 꽃처럼 떨어질 인생입니다
몸은 풀과 같이 약하고, 영광은 꽃처럼 떨어지고, 계획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생명은 풀 끝의 이슬처럼 떨어집니다. 인간은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못나고 더럽고 어리석고 한심한 인간을 하나님이 오라고 청해 주셨습니다.

3.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1) 지난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청하여 주신 것은 '이놈, 왜 못된 짓을 했어' 심문하여 뱀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도적질하던 죄, 음란죄, 사람을 죽인 죄, 우상 숭배하던 죄 등 그 무슨 죄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을 가지고만 오면 지난 죄는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40년 범한 죄, 50년 범한 죄, 70년 범한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를 청해 주셨으니 고맙고 감사한 하나님이십니다.

(2) 새 인격자를 만들어 주시려고 우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으며, 우리는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의 청함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청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끝까지 거역하는 자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고 멸망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리를 청하셨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신 다음에는 병든 부분을 치료하여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청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앉았어도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면 새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목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생활 방법이 달라지는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청해 주셨습니다.

(3)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청하셨습니다

① 자유를 주십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죄의 종인데, 용서함을 받는 시간에 죄책에서 자유인이 됩니다.

②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절대 능력으로 보호하시므로 평안을 주십니다. 전쟁없는 평안, 실패가 없는 평안, 원수가 손댈 수 없는 평안, 이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를 청해 주셨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평안은 돈에 팔려다니는 물건이 아니므로 아무리 돈이 많아도 평안을 살 수 없습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선물을 받은 자에게만 있습니다.

③ 생활비를 주십니다.
땅에 사는 동안에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주택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줄 것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복을 땅 위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은총 속에서 삽니다.

4.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청하신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초청을 끝까지 거역하고 딴 길로 가면 무서

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1) 궁핍을 당합니다
육신은 잘 사는 것 같아도 영혼은 사막이고, 지옥의 불이 붙고, 괴로움이 짙 차면서 육신도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저주를 받아 궁핍을 당하게 됩니다.

(2) 전쟁의 소모품이 됩니다
너무 끔찍한 말씀입니다. 세상에 무서운 것 중에 제일 무서운 것은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첫째로, 재산이 파괴됩니다. 둘째로, 건강하고 똑똑하던 사람들이 죽습니다. 셋째로, 남은 사람들은 병들입니다. 넷째로, 모든 것이 문란해집니다. 그러므로 전쟁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전쟁 뒤의 혼란은 말할 수 없이 더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절하는 백성에게 이 무서운 전쟁이 임합니다.

(3) 지옥에 떨어집니다
지옥이란 평안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곳입니다. 지옥이란 영원히 불붙는 곳이 기도 하지만 육신이 살아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다면 역시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면 그곳이 지옥입니다. 평안이 없고 자유가 없고 소망이 없으면 육신도 지옥이요 영혼도 지옥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으며, 우리는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의 청함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청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끝까지 거역하는 자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고 멸망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 김성관 목사의 금주 설교 ●

PASSEOVER
REINSTITUTED

(II Chronicles 30:13-22)

Hezekiah was the great king of Judah who purified the house of the Lord and reinstituted the Passover in Jerusalem. Prior to his godly leadership, both Israel and Judah had fallen into terrible sin and were under God's wrath. Israel eventually fell and became captives to the Assyrians under the leadership of King Hoshea. Hezekiah's leadership saved his whole country and added a hundred years to its existence.

The downfall and death of Solomon resulted in God's nation being divided into two separate countries; the Northern country (Israel) which was first ruled by Jeroboam and the Southern country (Judah) which was first ruled by Solomon's son-Rehoboam. Judah had Jerusalem as its center which was the place consecrated by God for His people to worship. Jeroboam thought that his people would turn on him and side-up with Rehoboam if they continued to travel to Jerusalem to worship. So he established two foreign alters and appointed non-Levites to the priesthood in his land so that Israel could worship without having to travel to Jerusalem.

Sadly, both Jeroboam's and Rehoboam's leadership mistakes led Israel and Judah into sin. Many of the kings that followed also did evil in the sight of the Lord. Once Israel fell to the Assyrians, it appeared that Judah would soon follow. Fortunately, Hezekiah's leadership changed the direction of God's kingdom from being cursed to being blessed.

How did Hezekiah's leadership influence his nation? The Bible tells us, "He did right in the sight of the Lord, according to all that his father David had done. He removed the high places and broke down the sacred pillars and cut down the Asherah. He also broke in pieces the bronze serpent that Moses had made, for until those days the sons of Israel burned incense to it; and it was called Nehushtan. He trusted in the Lord, the God of Israel; so that after him there was none like him among all the kings of Judah, nor among those who were before him. For he clung to the Lord; he did not depart from following Him, but kept His commandments, which the Lord had commanded Moses (2 Kings 18:3-6). Hezekiah purged Judah's sinfulness by observing the Lord and abolishing idolatry. He learned from the prophets' teachings and did not leave but remained solely the Lord. His undivided heart and devotion to God truly changed the hearts of a whole nation!

It's interesting to note that Hezekiah's first priority as king was to purify the house of the Lord. Only after reestablishing the house of the Lord and its services did he invite the whole nation of God (Israel, Judah, Ephraim and Manasseh) to come to Jerusalem and celebrate the Passover (vs. 1). Hezekiah understood the need for God's people to reinstitute Passover. His heart burned to obey His holy command, "Now this day will be a memorial to you, and you shall celebrate it as a feast to the Lord; throughout your generations you are to celebrate it as a feast to the Lord; throughout your generations you are to celebrate it as a permanent ordinance" (Ex. 12:14).

The reinstitution of the Passover was a major event because they had ignored this lasting ordinance for many years. The proper procedures needed to fulfill God's specific instructions for the Passover required them to celebrate in the second month of the year, instead of the official first month (vs. 2). The reason for the delay was due to their sin and therefore ill preparedness. The priests needed time to consecrate themselves and the people needed time to gather together (vs. 3). Thankfully, God allowed if circumstances required that the celebration of Passover could be postponed from the first month to the second (Num. 9:10-11).



회복된 유월절

(대하 30:13-22)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전을 정결케 하고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회복한 유대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 이스라엘과 유다는 심각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호세아왕때에 앗수르에 의하여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히스기야왕은 그의 나라를 구하여 백년 이상 유대 나라가 지속되게 하였습니다.

솔로몬의 범죄와 죽음은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를 두 나라로 분단되게 하였는데, 북방의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 의하여 다스려졌고, 남방의 유다는 르호보암에 의하여 다스려지게 되었습니다. 유다에는 하나님에 의하여 성결함을 입어 예배의 중심지가 된 예루살렘이 있었는데, 여로보암은 사람들이 계속하여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간다면 결국 그를 등지고 르호보암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고도 예배할 수 있도록 그의 땅 두 곳에 이방신의 제단들을 만들고 레위인이 아닌 자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슬프게도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잘못된 지도력은 이스라엘과 유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였습니다. 그들 이후의 여러 왕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패망하게 되자 유다 또한 곧 망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히스기야의 지도력은 저주를 받을 지경에 놓였던 형편에서 복을 받는 형편으로 유다의 방향을 전환시켰습니다.

어떻게 히스기야의 지도력이 그의 나라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뿔을 이스라엘 지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왕하 18:6)고 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순종하여 우상숭배를 제거함으로써 유다의 죄악을 씻게끔 하였습니다. 그는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떠나지 않고 지킴으로써 주님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의 나뉘지 않은 마음과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진정 온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먼저 하나님의 전을 청결케 하였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전과 예배를 새롭게 확립한 후에야 그는 하나님의 온 나라를(이스라엘, 유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예루살렘으로 불러 유월절을 지키게 하였습니다(1절).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월절을 다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출 12:14)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불타듯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영원한 규례를 여러 해 동안 무시해 왔기 때문에 유월절의 재건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유월절에 관한 구체적인 규례들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들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년 정월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명하셨으나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준비를 온전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월 대신 이월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는 자신들을 성결케 할 시간이 필요하였고 사람들에게는 모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3절).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정월에서 이월로 연기할 수 있도록 허락해 두셨습니다(민수기 9장 10-11절).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히스기야가 나라 전역에 보내었던 사역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 남은 자 곧 앗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6절)고 선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 대부분은 그들이 이미 하나님과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실 것이라고 부르짖

The messengers that Hezekiah sent through-out the land to invite God's people to celebrate the Passover carried with them this proclamation, "O sons of Israel, return to the Lord God of Abraham, Isaac and Israel, that He may return to those of you who escaped and are left from the hand of the kings of Assyria" (vs. 6). The majority of God's people felt that they already lived with God but Hezekiah cries out to them to return to God so that God can return to them. He asks them to be faithful, unlike their fathers and brothers (vs. 7). He pleads with them to put away their pride and yield, serve, and return to the house of the Lord so that God's burning anger may turn away from them (vs. 8).

Hezekiah wasn't interested in receiving political power and praise. His leadership efforts were sincere and godly motivated. He didn't passively move for change but actively sought after the return of God's kingdom. Most importantly, his invitation included the reason of "why" God's people desperately needed to return to Jerusalem and celebrate the Passover, "For if you return to the Lord, your brothers and your sons will find compassion before those who led them captive and will return to this land. For the Lord your God is gracious and compassionate, and will not turn His face away from you if you return to Him" (vs. 9). Hezekiah mentions the enormous blessings for those who decide to return. If they return, they will find compassion and love, which is not just earthly love between brothers and children, but heavenly love from God. They will find the love of the Lord and He will not turn away from them.

Sadly, the king's proclamation was received with scorn, ridicule and mockery (vs. 10). Only a few chose to make the trip to Jerusalem (vs. 11). The people were clever and used their intelligence to negate the positive attributes of their return. Their present living conditions were comfortable. From experience, they knew that returning to Jerusalem may cause trouble. It was a risk and they were scared. Their own thinking led them to see with sight not to walk by faith.

Those that gathered in Jerusalem were blessed by God with unity of mind (vs. 12). There wasn't any fighting or disagreeing over differences of opinion in the work that needed to be done. Just as the priests had previously cleansed the house of the Lord, the large assembly cleansed the city of all the paraphernalia of idolatry (vs. 14). They disposed the folk religion articles into the waters of Kidron; which shows their permanent repentance.

When the celebration began and the people ate the Passover, not everyone had followed the purification rules (vs. 18). Hezekiah prayed for them and God healed the people (vs. 20). For seven days they purely worshipped God with great joy, praise, and thanks (vss. 21-22). Then they decided to celebrate Passover for an extra seven days; marking the rededication of the house of the Lord. Everyone rejoiced in the Lord (vs. 25). Now, everything was in the right order and a great harmony existed. "So there was great joy in Jerusalem, because there was nothing like this in Jerusalem since the days of Solomon the son of David, king of Israel" (vs. 26).

"Then the Levitical priests arose and blessed the people; and their voice was heard and their prayer came to His dwelling place, to heaven" (vs. 27). God's appointed priests arose and blessed the people. Their function and normal activity was restored. Before, they were unconsecrated and basically non-existent. But now, their hearts were clean and their regular job was open. They blessed the people and God heard them. Heaven heard them because their prayers reached His holy dwelling place.

My heart yearns to listen, follow and obey Jesus. As He has called me to serve Him as the pastor of Choong Hyun Presbyterian Church, it is my duty to ensure that His church be pure, true, and faithful to Him in all aspects. Therefore, I call upon every church member to sincerely repent and be reconciled with God in Christ. It is very importance that each of you establish and maintain a right relationship with God. Having repented and established a right relationship with God, we have strive to keep on listening to His words, praying, and obeying to His commandments. Then our hearts will be filled with peace and great joy. Hezekiah experienced such peace and joy. Under his godly leadership a great revival took place. His service to God was done with all his heart.

Today, our country and our church both need a great revival! We can avoid God's wrath and be wonderfully blessed with His presence when we return, repent, and reinstitute our faith in Christ! Also, when we return, repent and reinstitute our faith in Christ, He will release the bondage of sin so that God's compassion can shine upon us. Let's cleanse our church, hearts, and homes and recommit to serving the Lord. Let's joyfully praise His name with one heart and receive His lasting peace and blessings. Amen!

어 외쳤던 것입니다. 그는 백성들이 그들의 열조나 그들의 형제들과 같이 하지 말고 신실하여야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7절). 또한 그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나기 위하여는 그들이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 주님께 굴복하며, 주님을 섬겨야 한다고 백성들에게 호소하였습니다(8절).

히스기야는 정치적인 힘이나 찬사를 얻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지도력과 노력은 신실하였고 참된 경건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변화를 향하여 수동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추구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초청 내용에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포함시킨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9절). 히스기야는 돌이키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위한 엄청난 축복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만일 그들이 돌아오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입을 것인데 이는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부모 자식간 혹은 형제간에 나누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건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돌아서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히스기야 왕의 선포는 오히려 멸시와 비웃음과 조롱을 불러 일으켰습니다(10절). 단지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습니다(11절).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명철하였고 그들의 지성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주어지는 긍정적인 특성들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들은 당시 편안한 삶을 살았고 그들의 경험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모험이었고 또한 겁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스스로의 이러한 생각은 그들로 하여금 믿음이 아니라 보는 것에 의하여 살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12절). 일을 하는 동안 싸움이나 의견의 불일치로 인한 불협화음이 없었습니다. 이전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전을 청결케 하였던 것 같이, 무리들은 예루살렘의 모든 우상숭배의 도구들을 제거하였습니다(14절). 그들은 우상숭배에 쓰였던 물품들을 기드론 시내에 던져버렸는데 이는 그들의 회개와 결심을 나타내는 행동이었습니다.

유월절 행사가 시작되어 사람들이 먹기 시작하였을 때, 그들 모두가 다 성소의 결례대로 정결케 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18절). 히스기야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치셨습니다(20절). 절기 칠일 동안 그들은 순전히 큰 기쁨과 찬양과 감사로써 여호와의 경배하였습니다(21-22절).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의 전을 다시 봉헌하면서 또 다른 칠일을 지키기로 결의하였고 모든 사람들은 주 안에서 즐거워 하였습니다(25절). 이제 모든 것은 다 질서있게 되고 조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26절).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27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제사장들은 일어나서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였고 그들의 기능과 평소의 활동들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그들은 생계지 못하고 쓸모없는 사람들과 같았으나, 지금 그들의 마음은 정결하여지고 그들의 사역은 새롭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며, 순종할 것을 열망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출현교회의 담임목사로 섬기도록 부르셨을 때, 저의 책임은 주님의 교회가 모든 면에서 순결하며, 진실되며, 신실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께서 각각 신실하게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실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각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하여 회개하고 주를 믿은 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마음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러한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으며 그의 지도하에 위대한 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조국과 교회 또한 위대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주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때, 주님은 우리를 결박한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의 마음, 가정, 교회, 그리고 주께 향한 헌신을 새롭게 합시다. 우리 함께 일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시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지속적인 평강과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 구역예배를 통한 전도 ◇



멀리서도 전도할 수 있다

김필수
(목사, 13교구 지도)

우리 13교구 성도들은 비교적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천, 부천, 김포, 양천구 일부와 강서구가 저희 교구입니다. 경기도 지역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서울지역이라고 해도 가깝다고는 말할 수 없는 곳입니다.

저는 심방을 할 때마다 이와같이 먼 곳에 사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곤 합니다. 아픈 다리를 끌고 지하철과 버스, 그리고 마을버스를 갈아타면서도 본 교회의 공적인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어른들, 아무리 멀어도 일주일에 한번은 본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드리겠다고 아예 하룻밤을 교회에서 주무시는 분들을 보면서 십자가의 보혈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신실한 성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몸은 늙고 병들어 교회에 나올 수는 없지만 구역장님을 통해서 매주 받아보는 주보와 주간충현을 통해 교회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원로권사님들을 심방하고 나서는 울면서 운전대를 잡고 교회로 돌아올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교구를 섬기는 목사로서 한 가지 서운하고 답답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구 성도들에게 전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할 수 없는 형편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저 이렇게 먼 곳에서 예배마다 빠지지 않고 나와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힘들다고 가까운 교회로 혹시라도 옮기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를 갖게 하는 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어쩌다가 전도하라고 권하는 저에게 성도들은 “나와 주는 것만도, 현상유지를 하는 것만도 고마운데 그런 말은 너무 부담을 주지 않을까요?”라는 말로 대답했고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마음 한 구석에 바로 이러한 점이 저를 자극하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결코 우리의 형편이 우리를 합리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들을 가끔씩 보여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천 연수구역에 사는 최경희 집사님이 전도해서 우리 교회로 인도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쁘게 소개합니다.

“수퍼에도 혼자서는 잘 못가는 저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남편의 직장을 따라 서울에서 낯선 인천으로 이사오면서 하나님께 저희 집이 작은 선교지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전도용으로 성경책들을 사서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이 성경책을 읽을 주인을 보내 달라고 성경책을 볼 때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전에 신앙 생활을 하다 방학중인 2명을 이웃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두 사람을 구역 식구들과 의논하여 구역예배에 인

도하여 재미있고 화목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들은 저희들을 부러워하며 지금은 가까운 교회에 등록하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책을 사놓고 기도하던 중에 지현이 엄마라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적극적이고 자상한 구역장님과 함께 기도하며 4살 된 지현이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여 찾아가 주님을 전하였습니다. 우선 우리 교회가 너무 먼 관계로 구역예배에 참석하여 예배드리기를 권하고 나의 특기인 어항 만들기를 해 주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지현이 엄마는 지현이를 데리고 구역예배에 참석하여 서서히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구역의 권사님을 비롯 모든 구역 성도님들은 열심히 기도하시며 자상하게 안내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드디어 지현이 엄마는 지현이를 데리고 우리 충현교회에 등록하여 지금은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가끔씩 지현이 아빠도 가족과 함께 우리 교회에 나옵니다. 지금은 지현이를 위해 유아부에 함께 참석하지만 곧 지현이를 유아부에 남겨두고 대예배에 참석하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제가 군에 입대한 아들을 걱정하니 “집사님,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을 주시니 잘 견딜 거예요” 하며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는 지현이 엄마를 보면서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지현이 엄마가 어서 말씀에 은혜를 받고 시어머니까지 전도하기를 기도합니다.

지현이네 식구를 전도하기까지 우리 구역의 권사님과 구역장님 그리고 구역식구들 모두가 함께 기도와 사랑으로 협력했습니다. 그리고 새 식구에게 자리를 양보하기 위해 승용차 대신 고속버스를 불편한 몸으로 타고 다니시는 연로하신 부모님의 배려에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께 건강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또 성경책을 사두고 그 책의 주인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경희 집사님의 경우를 통해서 전도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먼 곳에서도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전도하여 우리 교회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아직 낯선 교회로 인도하기 이전에 먼저 구역예배에 참석시킴으로써 마음을 열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구역 성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최 집사님의 경우 성경책을 선물하고, 어항을 만들어 주며 접근했습

니다. 빗썸으로 가족의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최 집사님의 경우 부모님이 지현이네 식구를 위해서 승용차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는 결코 환경 때문에 등한히 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믿고 순종하여

실천하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최 집사님의 경우를 통해서 겸손하게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전도를 잘하기 위한 전략도 짜고 방법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전략이요 최고의 방법입니다.

◇ 제3기 주부교양강좌를 실시하며 ◇



간접 전도와 그 방향

임기채
(집사, 청년2부 부감)

우리가 간혹 해외에 나갔다가 온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유명한 교회가 하나의 중요한 방문 장소로 안내되어져 곤 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신자건 비신자건 간에 경건한 마음으로 둘러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력하는 직접 전도의 효과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찾도록 만드는 간접 전도의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

우리의 교회 현실은 어떠한가? 신자와 비신자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비신자들에게는 교회의 접근을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자연스럽게 문화적인 접근을 통하여 올바른 기독교관을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교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사명인 전도의 사명으로 이어지는 간접 전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우리 교회 내의 많은 강의실과 교육장소는 주일에만 사용하고 평일에는 거의 활용되지 않으며, 본당 역시 문을 굳게 잠근 채 지역 사회와는 단절되어 있다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다.

현대 사회는 여성의 사회 참여 및 개성 발산이 확대되는 시기이고,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인 재교육이 붐을 이루는 시기인 지금, 기독교 문화의 올바른 사회 정착을

위한 교회의 사명과 역할이 중요시되어 가고 있다.

특히 자연스러운 문화적인 접근을 통하여 올바른 기독교관을 전파하면서 교회의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전도의 사명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은 없는지 살펴봐야 하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전도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여야겠다. 이러한 방법론에는 계층별, 연령별, 직업별 등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자연스러운 전도의 시발점 역할을 수행할 역량을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준비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현재 전도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제3기 주부교양강좌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첫째, 우리 교회 신자들의 재교육 차원에서 큰 역할을 한다고 보여지며, 둘째, 비신자들을 초청함으로써 자연스런 접근을 통한 간접 전도의 지평을 여는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쓰레기 분리수거합시다

종이류 쓰레기는 교육관 비상계단쪽 쓰레기함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한 후 이제는 점차로 자리잡아 나가고 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아직도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문제는 모두가 협조할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 특히 많은 쓰레기가 나오는 주일, 특히 교육관에서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 문제는 심각하다.

우선적으로 분리해야 할 쓰레기

는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쓰레기를 구별하는 일이다.

사무국에서 특별히 마련한 종이류 쓰레기함을 교육관 각층 비상계단 쪽에 마련해 놓았다. 종이류 쓰레기는 반드시 지정된 함에 넣어 재활용이 가능토록 할 뿐만 아니라 쓰레기 양을 줄여서 비용도 절감되도록 해야 하겠다.

취재수첩

탁아부 '영적인 자녀 교육' 특강

지난 주일(8일) 3부예배 후 베들레헴 홀(본당 지하 1층 탁아부실)에서는 구명신 전도사의 특강이 있었다. '영적인 자녀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려진 이 강의는 탁아부 학부모들뿐 아니라 자녀를 영적으로 키우기 원하는 학부모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시간이 되었다.



청년2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지난 주일 청년2부에서는 찬송가 부르기 대회가 있었다. 이는 찬양을 통해 성도의 교제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성화를 찬양함으로써 감사한 생활과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 대회는 두 달 전부터 준비가 시작되어 부부반, 남녀반 총 19개반이 참가하였다. 그리고 중간에는 군전도위원회 소속 중창단의 특별 찬양이 있었고 마지막에는 청년2부의 어린이반 아이들이 모두 나와 찬양을 하여 모든 회원들이 하나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였다.



새가정부 여름수련회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는 가정'

새가정부는 지난 6월 5일부터 6일까지 충현기도원에서 성봉환 목사를 강사로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는 가정'이라는 주제와 사도행전 10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름수련회를 가졌다.

6월 5일(목) 오후 7시 새가정부 회원들은 교회를 떠나 기도원으로 향했다. 도착한 다음 개회예배를 드렸고 이어 환영의 밤 순서가 있었다. 행사를 마쳤다.

6월 6일(금) 6시에 기상하여 새벽기도회를 가졌고 시 26편, 잠 6장을 각각 목사와 회원이 교육하면서 QT시간을 보냈다. 둘째날은 그룹 토의시간이 있었는데, 모든 인원을 4개의 그룹으로 짜서 하나님 앞에 상달하는 방법에 대해 토의하고 각 그룹마다 나온 내용들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상대방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하여 부부생활의 활력을 되찾게 하고 이를 통해 발전된 신앙 공동체 의식을 배양하게 하기 위한 부부 영성 훈련은 배우자에게 고맙게 느

졌던 점, 배우자의 장점, 배우자에 대한 불만, 바람 등에 대해 10가지씩 작성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점심 식사가 끝난 후 약 20분간은 산책로를 따라 거닐며 부부가 그 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제공하였다. 그 후 가족 모두가 여러 가지 게임을 하는 등의 시간인 가족 레크리에이션 체육 행사가 있었다. 사랑과 나눔의 바자회 시간에는 5월 26일부터 새가정부 회원들에게서 받은 기증품(생활용품, 유아용품)을 회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때 판매된 금액은 복한 동포나,



불우이웃을 돕는 데 쓰여질 것이라 한다.

새가정부는 신혼 부부부터 유아부의 아이들을 둔 가정까지 포함하고 있어 수련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부부들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 아이들은 열매반으로 성경 공부 등의 시간에는 열매반의 일정표에 따라 그림을 그리거나 만들기, 게임 등을 했다.

이번 수련회에는 130명의 새가정부 교사의 가족과 회원들의 가족들이 참여했다.

▶ 유아부에서는 오늘(6월 15일) 유아부 1부예배 후 금년도 두번째 교사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담당 교사는 사랑4반 조순혜 선생이다.

▶ 유년부에서는 오늘(6월 15일) 구

명신 전도사를 강사로 하여 교사 특강을 실시한다. '유능한 교사가 되려면'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 관심있는 교사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 사랑부에서는 오는 6월 18일(수) 낮 12시 교육관 107호에서 학부모 초청 좌담회를 실시한다.

▶ 선교위원회에서는 단기 선교 활동 중 사용할 의류, 문구류, 의약품 등을 기증받는다. 뜻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접수는 선교위원회 사무실(선교관 406호).

▶ 안수집사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의 보다 열려 넘치는 선교활동을 위하여 목회에 필요한 도서를 구독할 수 있도록 1년치 구독료를 지원하였다.

▶ 군전도회에서는 지난 5월 31일 육군 제55사단을 방문하여 500여명의 장병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이날 진중세례식에서는 전형준 목사가 설교를 하였으며, 우리 교회 장로들도 참여하여 하나님의 군병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장병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기도 했다. 이러한 군전도회 활동을 통해 더욱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도들의 관심과 끊임없는 기도의 지원이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다.



(글/박주영, 임필아 기자, 사진/이운구 기자)

선교지에서 온 편지 / 김원호 터키 협력선교사

불가항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며

기도해주시고 협력해주시는 모든 선교 동역자님들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터키 TV방송 '32 gün' 프로그램을 시청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터키에 600여개의 이만하티프(이슬람 학교)에 다니는 60만 중고등학생이 있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쿠란학교에 다니는 학생수가 자그만치 160만명이며 그 숫자가 6,500개 이상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모들이 자녀들을 생계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학교에 보내고 있고 이들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도움을 주며 쿠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터키에서의 선교사역이 어찌면 불가항력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자 마음 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쿠란학교를 나와도 육체 형제처럼 주님께 돌아와 전도자로 일하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회망을 잃지 말자!'

그간의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일들과 기도요청을 드립니다.

감사한 일들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던 티픽 형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당하게 하시는 고난을 바로 알고 잘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그걸 모르고 우리는 얼마나 방황하며

절망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고난이 우리를 어느 정도는 슬프게 하고 낙심을 시키지 않는 후에는 자기 반성과 많은 것을 스스로 깨닫고 일어서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하자 선뜻 "교회에 다시 나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침에 산책을 나갔다가 길에서 우연히 만난 켄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뿌린 씨앗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7년 전에 대학에서 주님을 만나 영접한 친구였습니다.

지난 3월 18일 알레비 모슬렘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수년 동안 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존 선교사를 초청해서 가진 세미나에서 우리의 편견과 미숙한 방법으로 복음을 제시해 왔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난 3월 26일 알레비 청년인 불친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독교에 대해 호기심과 관심을 갖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기다려 왔었다고 말하는 이 청년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께서 준비시켜두신 영혼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4월 6일 제이틴부르스교회 창립 4주년 감사예배를 여러 성도들을 초청하여 드렸습니다. 일하는 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자고 설교를 했습니다.

얼마 전 여행자로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던 두 자매 선교사님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의 고발로 경찰에 연행되어 국외로 추방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터키 선교를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국민들이나 정부에 안 좋은 인상을 계속 주며 선교하기보다는 선교사가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로 인식되도록 도움과 유익을 주면서 선교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감사한 것은 6년 동안 비자문제로 다녔던 교육대학의 졸업을 앞두고 고등학교에 나가 교생실습을 해보았습니다. 한 반에 약 60-70명 학생들 앞에서 영어를 가르치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면 영어 교사로 일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특별 기도제목

무스타파, 글라이 부부, 육셀 전도사, 그리고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왔던 가지마할레 모임에 예상했던 대로 어려움이 왔습니다. 첫째는 지난번 서신으로 알려드린 대로 "앞으로 어린이들의 믿음이 자라만 반드시 부모들로부터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받는 어린이들이 집에서 기도하고 행동이 달라지자 부모들이 반발하여 모임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위 테러 집단에서 모임을 갖지 못하도록 협박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제들과 의논하여 당분간 모임을 중단하고 제이틴부르스교회로 나오도록 했습니다.

(1) 글라이 자매가 득녀해서 요양 중에 있습니다.

(2) 3년 동안 고국을 방문하지 못한 저희 가정의 이번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한국을 방문하려고 합니다(6월 중순-8월 하순). 방문 기간 동안 여권 연장 및 건강 검사, 후원교회 방문 등 유익한 시간과 재충전 받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 새로 주님을 영접한 무스타파 가정의 믿음의 성숙과 어린이들(글라이, 알리, 무랏, 데이즈, 제이란, 마슴)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요청

(1) 매주 수요일마다 제자훈련을 받고 있는 육셀 청년과 클름 대학생들을 위하여

(2) 세밀 형제의 불가리아 터키촌 사역과 복음전도 사역을 위해

(3) 주님을 멀리 하고 있는 알리 메헤메트와 깨말 형제를 위해

(4) 제이한 형제와 그의 어머니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

(5) 변호사가 되어 일하고 있는 아하델 형제를 위해

기관지염으로 계속 마음과 몸이 연약해져서 낙심된 마음에 일하고자 하는 열망이 다 사라져 버릴 때 주님께서 다시 만져 주시고 강하게 해주심을 체험했습니다. 정말 주님만이 내 삶의 목적이며 전부라면 환경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단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선교 동역자님의 가정과 사업과 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 속에서 만나뵈기를 기원하며...

1997년 4월
김원호 선교사 올림